

# 2012년 탄소문화상 심포지엄 및 시상식

KCS

일시 | 2012년 12월 17일(월) 10:00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



▶ 제1회 탄소문화상 심포지엄 및 시상식에서 이덕환 탄소문화원 초대원장(우)이 박이문 명예교수에게 탄소문화상 대상상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인류문명의 핵심 ‘탄소’,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사)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 설립...탄소문화상 시상, 문진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다양

글 임인재 과총 객원기자 mimohhh@naver.com

**탄**소. 원소기호 C, 원자번호 6번. 흑연, 다이아몬드 등이 동소체. 우주에서 수소, 헬륨, 산소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 석탄과 석유의 주성분. 탄소를 과학적으로 수식하는 말이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탄소는 모든 생명의 근원, 현대 문명의 시초, 인류 문화의 핵심이다. 탄소는 인류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원소이자 가장 오래된 원소이다. 인류 문명은 1만2천년 전 탄소를 기반으로 한 농경과 목축에서 시작했다. 유전정보가 담긴 DNA는 탄소 화합물이며, 광합성과 호흡을 비롯한 모든 생명 현상은 탄소로 만들어진 유기물에 의한 것이다.

산업혁명은 탄소 덩어리인 석탄을 기반으로 했다. 탄소 원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은 차세대 나노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 에너지, 인간 뇌의 활동 등은 모두 탄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탈탄소’,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탄소는 ‘공공의 적’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탄소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알리는 ‘탄소문화원’(원장 이덕환)이 설립된다. (사)대한화학회(회장 강한영) 부설 단체인 ‘탄소문화원’은 지탄의 대상이 된 탄소를 재평가하고 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덕환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탄소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고약한 원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탄소문화원은 ‘탄소’를 모든 과학기술의 중요한 상징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저탄소’, ‘탈탄소’의 녹색성장이 아닌 ‘친탄소’, ‘친화학’ 기반의 녹색성장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문화원은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문화 저변 확대, 과학기술 인식 제고에 기여한 석학들에게 수여하는 ‘탄소문화상’ 시상,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문화원 문진아카데미’도 진

행한다. 그리고 언론보도 홍보팀을 꾸려 화학적 사고, 화학·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탄소문화원 초대원장인 이덕환 원장은 현재 서강대 화학과 교수이자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주임교수로 그동안 1천700여 편의 과학칼럼, 24권의 과학교양 서적 등을 집필했다. 그리고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 2012년 기초과학단체협의회 회장, 과학독서아카데미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과학과 사회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

### 탄소문화상에 언론상 추가

‘탄소문화상’은 ‘탄소문화’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대한화학회가 처음 제정했다. 여기에서 ‘탄소문화’란 개방성, 민주성, 합리성이 포함된 과학기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상 대상자는 현대 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과학, 인문, 사회, 문화계 인사들이다. 제1회 탄소문화상 수상자는 대상에 박이문 시몬스대 명예교수(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학술상은 김관수 연세대 교수·김상규 KAIST 교수·이분열 아주대 교수, 기술상은 양갑승 전남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박이문 교수는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경철학’, ‘더불어 사는 인간과 자연’,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성의 시련’ 등 100권이 넘는 학술서와 30여권의 시집을 집필한 박 교수는 과학과 인문학을 문화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생태학적 세계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덕환 원장은 “올해 제2회 탄소문화상에는 언론상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의 가치 재평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탄소문화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이 상이 수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탄소문화원 문진아카데미’ 개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인 ‘탄소문화원 문진아카데미’(가칭)도 개최된다. 이 과정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 올바른 과학문화의 의

미를 알리고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탄소문화원 이름으로 된 수료증도 받는다.

강의 내용은 주로 현대 과학기술의 이해, 탄소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을 위한 소통 전략, 과학기술 이슈 보도와 대응 방법, 화학과 화학·에너지 산업 등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저명 대중강연자들의 특강도 마련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대 과학기술과 탄소문명’, ‘과학문화란 무엇인가’, ‘탄소의 문화철학’,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 ‘에너지와 자원’, ‘화학과 화학에너지 산업의 미래’,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과학저널리즘의 이해’ 등이다.

이 원장은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 및 토론회 참석, 언론 인터뷰, 언론사 칼럼 기고 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탄소문화원은 ‘친탄소’ 및 ‘친화학’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탄소문화지수 개발, 탄소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포스터 공모전, 세계 탄소석학 초청 과학 토크쇼 개최, 청소년 대상 탄소문화어울림마당, ‘친탄소 녹색성장’ 상품전시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이 원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화학과 화학·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위원회도 꾸려진다”며 과학위원회는 전반적인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융합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이 원장은 “물질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현재의 과학기술문명은 탄소문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인간이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하려면 이 물질적인 탄소문명을 인간성과 도덕성이 가미된 탄소문화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자연과학은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인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문학도 반(反) 과학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두 학문 간의 소통으로 탄소문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